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社會道德의 墮落

一

從來 우리社會에서는 自殺、情死等은 勿論이오、甚至於 無理情死、親族間의殺人、血族殺害等等 前者에 보지못한 可憎할現象이 流行病과가티 이곳저곳에서 頻頻히 發生하야 每日가티 新聞紙上에 報道되고잇다。勿論 이는 個個의 事實이 모다 事件의 個性을가저 그原因도 同一하지 안흘것이며、또는 이러한 類型的事實이 發現하는 裏面에는 어떠한 뿌리기픈 社會的原因도 잇다는것을 否認지못할것이다。그러나 吾人은 以上의事實을 肯定하고 이것이 一律的이아니라는것을 是認한다하더라도 적어도 一方으로는 이모든것이 道德的感情의 墮落、社會意識의 缺如에 基因된 不美한 社會的風潮이라는것을 是認치 안흘수업다。

二

昔日의 朝鮮에잇서서는 비록 交通及 報道機關의 未發達로 今日가티 普及되지못한 까닭도 잇겟지만 아무튼 이러한 不美한風潮는 엇더던것이 事實이다。이는 歷史가 證明하는바이어니와、所謂 新文明이 輸入되어 그文明속에서 呼吸하고 敎育이 普及되어 그敎育속에서 血液을 循環시키다는 現代에잇서서 昔日에 못보던 殺伐、悖倫의 氣風이 流行되고잇는것은 무슨 까닭일까? 一言而蔽之하면 이는 昔日에는 如何히 政治가 腐敗하고 文化가 未發達하엿다하더라도 社會道德의 基準이 儼然히 서잇서서 그것이 不動의 權威로써 民主主義的 思想이 發達된 反面에 이러한 權威로써 社會의 風潮를 能히 左右할수잇는 社會道德의 權威가 甚히 薄弱한 때문이라고 할수 잇다。더구나 現今의 우리 社會와 가티 아직 過渡期를 未免하야 舊時代의 文化는 破壞되엇스나 아직 新時代가 뚜렷이 그輪廓을 決定하지못하고 自律的道德의 基準이 樹立되지아니한 곳에 잇서서는 個個人의 行動이 自由라기보담 放縱에 흐르기쉽고 그러한 氣風은 病菌과가튼 傳染性을 가지고 一般을 風靡하게 되는것이다。

三

現今의 우리社會를 돌여다볼다면 以上의 事實은 곳證明될것이니 卽 前記한 悖倫의 事實中에는 同情할만한 事情도 勿論잇겟지만 그根本原因의 擧皆는 첫재 放縱을 意味하는 自由主義를 信奉하고 個人의 社會에 對한 義務를 忘却한 社會意識의 缺如에 因함이오、둘재 拜金主義와 배흠마친 享樂主義는 人生의 最高理想과 幸福이 物質的享樂에만 잇다고 밋는結果 目的을 爲해서는 手段을 選擇치 안는다는 結論을가저 金錢을爲해서는 殺人도 敢行하며 또는 夫婦、姉妹의 禁風을 자아내며 이에對한 失敗는 死로써 解決한다。이에따라 一般 安逸을 貪하고 頹廢를 좃는 傾向은 責務의 重大나 生命의 價値도 忘却하고 官能的 滿足을 刹那的으로 求하다가 醉生夢死할뿐이며 그것을 求하기爲하야서는 悖倫、破廉恥의 行動까지 躊躇치안케되는것이다。

勿論 이것은 現時代的反映이라고도할수잇고 또한 社會情勢에因한 不可避的現象이라고도할수잇스나 [illegible] 이러한 社會意識、社會道德의 缺如에서 오는 [illegible] 現象이니 어느 社會에 [illegible] 것 以外의 아모것도 아니다。그러므로 이러한 不美한 風潮를 放任하여둔다면 將次 어떠한 社會的結果를 나타내리라는것은 推測키 容易하거니와 事實 우리 社會는 이러한 社會意識의 缺如나 自由主義的 頹廢에서 오는 이러한 風潮를 물리치는것이 急務이다。이에는 勿論 家庭의 敎養과 學校敎育에 注力하여야할것이어니와、環境과 敎育의 關係를 考慮한다면 이 어떠만 依賴할수도 업슬것이니 새로운 道德을 振作하기 爲한 社會敎育 卽 社會的一大運動이 緊急히 必要하다는것을 痛切히 느끼는바이다。

政府軍의反擊으로 叛軍到處서壞滅

空陸呼應、國軍과民軍總動員

鎭定說을反亂軍否定

【마드리드廿一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反亂의 重大化에 鑑하야 國軍及民軍을總動員하야 空陸서로 呼應하야 反擊을 加한結果 叛軍도 到處에서 壞滅되엿다고 傳한다 마드리드市 附近 空襲과 砲擊을 加하기前後五時間、完全히 叛軍을 沈默케하엿는데 더욱 叛軍의 本據세빌라 발렌시아 마라가各都市의 叛軍은 거이 退却하엿다고 한다 一方몰라[illegible]兵團을 指揮하고 反亂軍에 參加한 판트將軍은 二十日戰鬪에서 重傷을負하고 逃走할수업서 마침내政府軍에 逮捕되엿다 將校十八名도亦是逮捕된後 自殺을遂하엿다 本部사라고사에서는 叛軍은 依然 抵抗을繼續하고잇는데 政府軍은 同地方의 民軍을 總動員하야 一擧에 叛軍을 潰滅식힐意氣를가지고잇다

【메리리아二十一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二十日深更以來 極力叛軍의 鎭定을宣傳하고잇스나 革命軍은 어데까지 政府의報道를 否定하고 二十日夜半 左와如히 聲明하엿다

政府는 極力革命軍의 敗北를 放送하나 그것은 事實을歪曲하는것이다 革命軍은 破竹의 勢로 各地를 占據하고 方今 政府統制下에잇는것은 마드리드市뿐이다 西班牙領 모로코는 바야흐로 軍事政治下에完全히秩序는 維持되엿다

산훌호將軍은墜死?

【리스본二十日發同盟】軍事革命에 失敗하고 리스본에亡命하엿든 산훌호將軍은 舊同志의蹶起로 리스본을出發하야 飛行機로 마드리드에 向하엿는데 途中에서 飛行機가 墜落하야 將軍은 慘死를 遂하엿다고 傳한다

叛軍總帥프將軍動靜

【마드리드二十日發同盟】革命軍의總師 프랑코將軍은 二十日 飛行機로 모로코테찬을 出發하야 西班牙本土로 向하엿다고 傳하는데 二十日午後 本國政府는프랑코將軍의 動靜에對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叛軍은세빌라를撤退함에當하야 同地放送局을通하야 프랑코將軍은 도바로 逃走할意思가잇다 따라水上機를 보내라는 메세이지를放送하엿다 프랑코將軍의 所在에 對하여는 情報가 區區하나 進報에依하면 스타에머울러 라디오를 通하야 모로코와 西班牙本土의 革命軍을 指揮하고잇다고도한다

右翼革命報道로 西班牙廢帝待機

今回革命은復辟目標임을確言

【마리엔바드(체코슬로바키아)二十日發同盟】西班牙廢帝 알폰소十三世는 共和制確立同時에國外로 亡命한以來 체코及 匈牙利國境에잇는 자마이스키侯의 居城 랍센밧하에 滯在하면서 故國政府의 動向을 注視하고잇는바 右翼革命發動報道에 二十日午前 急遽[illegible] 떠나 말로바하에 赴하야 더니히스바드의 메데르니히侯의居城에 入하엿다 알폰소十三世는 國內에 復辟氣運이 完熟될時에는 卽時 行動을 이르킬터로 待機姿勢를 取하고잇다고 觀測되는바 二十日午後電話로써 廢帝의感想을 質問하매 今回의 革命은 結局復辟을指目한다는것이다 라고 確言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今回의 革命은 王黨派와 共和派가 서로 提携하야 左翼政權과 抗爭을 開始한것으로 結局 復辟을指目한것이며 그리고 擧國一致의 國民的運動으로 王黨派라든가 共和黨의 意圖라고 解釋되는 一部黨派의 復辟運動에對하야 余가 關知하는것은 아니다 余가 願하는것은 要컨대 西班牙를 左翼政權으로부터 解放하야 白日下의 殺戮과 無秩序로부터 國民을 救[illegible]하는데잇다 그리고 余의 唯一한 要求는 軍隊의 支持에 依한 右翼政權을 樹立[illegible]

現左翼政權에對한 右翼保守派의反擊

西班牙動亂에對한外務當局觀測

【東京電話同盟】西班牙의叛亂勃發은 政府側의 通信制限으로 矢野公使의 公電까지 아직 到着되지안는 現狀인데 日本政府는 佛蘭西를 全佛蘭西를 動搖케한 佛國左翼人民戰線의 動亂을 回想케하야 歐洲는 바야흐로 國際的으로나 또는 國內的으로 非常한 困難時에 逢着하여잇는바 其影響하는바도 또한 重大하다는 見地에서 情勢의推移에 注視를 不怠하고 二十一日 定例閣議席上에서 有田外相은 今次西班牙動亂의 大要를 說明하고 이에對한 日本政府의 見解를表明하엿는데 外務當局은 이에對하야 大要 左와如한 觀測을 下하고잇다

西班牙 今回의動亂은 現政府에對한 右翼保守派의 反擊인바 左翼人民戰線에 對한 國粹派의 叛亂이다 아지나아新大統領은 今年二月十六日의總選擧結果로 獲得한 左翼議員二百六十六名을 擁하고 就任하엿는데 五月十三日 처로가 氏에 依하야 政府를 組織케하고 第一步를 내여드되엿는데 이에對하야 [illegible]民其他 保守派의 不滿이 元카나리아[illegible]프랑코將軍의 [illegible] 今回의 大亂을 惹起한것이다

共產黨員 修道院과病院襲擊

【페비니아[illegible]西班牙國境)二十日發同盟】西班牙西北部제로라스에波及한叛亂은 形勢不利를 傳하는一方 共產黨員은 叛亂鎭壓에 [illegible]行使한다는 名目下에 兵器의交付를 要求하엿스나 이미 危險을 脫出하엿슴으로 政府은 交付를 拒否하엿다 共產黨員은 政廳의 拒否에 憤慨하야 제로라 修道院及 病院을 襲擊하야 修道院及患者를 逐出하고 放火하엿기때문에 修道院及 病院은 灰[illegible]

로카르노豫備會商 佛政府서受諾

【倫敦二十日發同盟】倫敦駐箚佛國大使코방氏는 二十日午後七時 英國下院에서 이든外相과 會見하야 로카르노豫備會議에 對하야 左와如한 通告를하엿다

一、佛國政府는 來二十三日倫敦에서 로카르노豫備會商을 開催하는데 同意함

一、會議에앞서 英佛白三國政府는 共同聲明을 發表하야 佛蘭西의 平和提案及 히트러總統의 代案에 對하야 硏究하는데 異議업다

一、但最終會議는 伊太利의 參加를 得하야 開催하는 [illegible] 協議한結果 決定하고십다

人事·集會

◀植原悅二郞氏(專賣局長) 二十二日午後三時 京城發大邱支局管內에出張 二十四日午後十時三十五分歸任豫定

◀澤內利夫氏(京城專賣支局長) 新任人事次來社

◀溝口聰氏(平安北道內務部長) 新任人事次來社

東取、當所株上場除外

廿二日定刻부터立會

【東京電話同盟】東株取引所에서는 二十一日 午後二時 重役會를 開催하고 또 取引所員側은 午後二時半 聯合委員會를 開催하고 二十二日以降의 市場立會를 協議한結果 株式取引所株卽 東株新舊、大株新、瀋株(大株의母株)(名古屋株는 取引僅少로 除外)를 各各 追證을 徵收하고期間、業務規定[illegible]立會를 中止하고 其他의 證券取引 長短實物은 二十二日 定刻부터 立會를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라 取引所員組合에서는 午後三時부터 取引員總會를 開催하고 右委員會의 內定案을 附議하야 滿場一致로 可決하엿다 東株以下의 委託證據金은 東株新舊各八圓 大新六圓 瀋株四圓이다

大株도自廿二日 雜株立會를開始

【大阪電話同盟】大株取引所에서는 別項과如히 東株의 決定에 基하야 二十一日午後再協議한結果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一、東株新舊 大株新舊를除하고 二十二日定刻부터 東京同樣으로 立會를 開始함

二、右取引所株는 二十四日부터 再開함

三、長短期모다 增證據金을 徵收치안함

四、二十二日 短期受渡는 此를 行치안함

短期日步의基準은 一錢二厘로低下하고 一錢二厘以下의것은 現率대로함 그리고 逆日步는 無日步로함

新條約調印完了로 土軍隊海峽進駐

世界大戰爾來十餘年間無防備狀態로잇든

다다넬스兩岸遂武裝

【이스탐불二十一日發同盟】土耳其政府는 廿一日午後十時 海峽制度에關한 新條約의 調印을完了하는同時에 附屬議定書의 明文에基하야 마침내 다다넬스海峽地帶의 再武裝을 斷行하기로 決定하고 二十日深更 이스탐불駐屯軍에 對하야 進軍命令을下하엿다 同國軍五千은 總司令官아타튜르크大統領의 命令一下에卽時 出動準備에 着手하야 二十一日새벽進軍喇叭소리에 마추어 隊伍堂堂히 海峽地帶에 進擊을開始하엿다 世界大戰以來十餘年間 自國의心臟部를 無防備한채로 外國軍에게 맛겻든 土耳其政府는 新條約의成立을 契機로 마침내 이地帶에 不落의要塞를 建設할 意圖라고 解釋되다

進擊部隊는 步兵及騎兵을主力으로 砲兵機械化部隊가 後續하야 二十一日正午까지에는 完全히 海峽兩岸을 占據할 豫定이다 右地帶의 全市民은 二十日夜 라디오放送에依하야 新條約調印의實況을 逐一聽取하엿는데 調印後에는 街上에 踊出하야狂喜亂舞로 밤을새우고 遺憾十有餘年 自國軍의精銳를 마지는家家戶戶에는 國旗를揭揚하고 萬歲와가튼 歡呼를보내다

各局의提案遲延

第一次査定은八月初乎

總督府明年度豫算은 二十日까지 財務局에提出될豫定이든바 各局이 모다 愼重한態度로 案을 考究하고잇슴으로 豫定보다 顯著히 느저 二十一日局長會議에서 林財務局長으로부터 可及的速히 提出하여주기를希望한다는 意見을開陳하기까지하엿는데 이러한狀態로 나가면얼마도 今月末頃에야 全部提出되리라고 觀測되는데 一方財務局에서는 今月末頃까지에 歲入의 豫想을세우고 八月早初各局에서 提案한 重要新規及 重要[illegible]으로 따라 [illegible] 政策의 第一次査定에 入할터인데 旣報한바와如히 各局의 新規要求는 적어도 一億五、六千萬圓이라고 觀測됨으로 一年의 豫算査定은 例年에업는 迂餘曲折이 잇스리라고 豫想되는바 各局의 態度는 자못注目되여잇다

時事漫畫

內亂은 이제 完治되엿스나 줄이 처지게 始作햇스니......

日本을對象으로 蘇中軍備益强化

陸相、情勢의急迫을切感하고 對應策의急務를力說

【東京電話同盟】蘇中條約締結에依하야 一億元의 軍需品購入을 企圖하고 또 米國政府의間에 軍需品購入을 目的한 特殊協定을成立식혓다고 傳하는것은 日本에對한 [illegible]의表現이라하야 軍部方面에서는 重大視하고잇는바 蔣介石은 最近北中自治運動이 勃發하자 二十萬의 大軍을動員하엿고 數十萬의 黃金을 [illegible]으로써 北中自治運動의 中心人物을 買收하고 그리고 最近에잇서서는 抗日政策을 徹底하게하는 反日救國同盟과 締結하야 抗日政策을 徹底하는外에 浙江省方面의 重要地域에對하야 防備施設을 行하고 又米國等과聯結하야 巨額의 軍需品을 購入하야 着着戰備를 整備하고잇는바 이러한 情勢는 日本을 對象으로 하는것이라하야 日本軍部當局은 重視하고잇다 一方 外蒙과 蘇聯과 軍事密約을 締結한데依하야 同地는東方赤化의 根據地로서의 役割을 하게되고 極東蘇聯에잇서 赤軍은 또그數를 倍加하야 戰時態勢를 整備하고 國境에 待機하고잇는 情勢는 滿洲國及日本國防上 重大脅威를 與하는것이라하야 右는 이日本을包圍한 緊迫된 軍事的情勢에鑑하야 近近三相會議를 開[illegible]議에서 發言을 求하야 關係省當局의注意를 喚起하는同時에 이情勢에對應한 措置를 講究함이 急務라는것을 力說할터인데 그 發言內容은 各方面의注目을끌고잇다

對蘇對中問題로 海、陸、外當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一日正午부터 外相官邸에 寺內陸相、永野海相、梅津陸軍次官、長谷川海軍次官、磯谷陸軍軍務局長、豐田海軍軍務局長및 町尻陸軍軍事課長、影佐、有末兩中佐、海軍의 軍務局保科第一課長、岡大佐를 招待하고 外務省에서 堀內次官、東鄕歐亞局長等이 出席하야 午餐을 함께하면서 對蘇對中問題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도이에압서 永野海相은 閣議後 首相官邸에나머서 廣田首相과 約二十分間 會談하엿다

政府所有米(六月卅日現在) 五百七十三萬石

米穀統制委員會서發表

【東京電話同盟】米穀統制委員會席上 政府所有米現在高에 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六月三十日現在單位石)

日內地玄米	
七年產	一、[illegible]
八年產	三、〇二五、七六一、六
九年產	六四四、〇四六、〇
十年產	一、七〇六、四〇七、二
小計	五、三七七、四三八、〇
日本內地白米	八五、九八〇、七
朝鮮米	
八年產	二六三、三三九、三五
臺灣米	
八年產	九八五、二三
九年產	四、四七三、一〇
合計	五、七三二、二一六、四四

定例閣議經過

【東京電話同盟】二十一日의 定例閣議는 前回의 閣議決定에依하야 午前九時二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廣田首相以下 全閣僚가 出席하야 神奈川縣經濟部長 大津敏男氏의 滿洲國人人事를 決定한後 小川商相으로부터 今日 東株市場의 立會가 取引所 改善에 關한 政府의腹案이라고 稱하는것이 傳하야 初付부터 立會가困亂하야 드듸어 前場立會를 中止하게되엿다 그러나 取引所改善案이란것은 全혀 虛報이다 商工省에서는 二年前부터 取引所改善에 關하여 愼重硏究中이나 아즉 何等成案을 엇게되지 안엇다 따라서 政府改善案이란것이 漏洩될리는 決코 업슬일이다 라는旨를 述하야 各閣僚의 諒解를 求하고 同十時二十分 散會하엿다

夕刊後市況 廿一日

◆橫濱 生糸 後引◆
當限七四一〇〇 先限七二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〇六〇 先限 五八六〇

國民會議招集

土政府卅日에

【앙카라二十一日發同盟】土耳其政府는 三十日 國民會議를 召集하고 海峽制度에 關한 新條約을 批准하기로 決定하엿다

八月特輯號綠蔭讀物の唯一誌

中央公論

本日發賣・定價八十錢・東京麴町丸ビル 中央公論社

政治的自由の擁護 今中次麿

農家經濟と小作爭議・平野義太郞

現代官吏論・岡邦雄

日本的性格とファッシズム 三木清

小說 彼岸 德永直

小說 萱の花 川端康成

小說 小惡魔 榊山潤

小說 喜劇 廣津和郞

夜の宿 ルポルタージュ
▼木賃宿 仙木下 ▼國宿ホテル 下村千秋 ▼帝國ホテル 杉山平助

黑い太陽を追ふて…堀井政三

カメラ隨筆…佐和九郞

義務教育延長の是非
▼延長の見方…佐佐木秀一
▼義務制の檢討…山下德治

教養と文學の世界・谷川徹三

清夏京風特別讀物

密航海女隊(揷畫)島崎鷄二・穎田島一二郞 作

髣髴(揷畫)高井貞二・丸尾長顯 作

秋扇譜(揷畫)小川信[illegible]・高圓寺文雄 作

思想時評(漫畫) 岡本一平・堤寒三・柳瀨正夢

小寺融吉・盆踊行脚

杉田鶴子・首島齋日錄 原田讓次郞

小穴隆一・角屋の話

世界人類の

街の人物評論

二・二六事件特輯

判決以後の諸問題

大ヒマラヤに挑戰する人々 松方三郞

在野團體から觀た帝院改組…正宗得三郞

棋界合同始末記…大成迷人

夜の詩(詩)…丸山薰

渡歐雜吟…高濱虛子

事件關係人國記 田中惣五郞

日本名將論…水野廣德

ゴオリキイの最後…中山省三郞

(未發表)盲人の歌…ゴオリキイ

千石興太郞論…野田豐

道德的教化の理想と態度・長谷川如是閑

財界の今後・太田正孝

外は內よりも急なり・芦田均

事件の社會的影響・河上丈太郞

首相官邸一番乘りの記 和田日出吉

事件判決所感(座談會)

軍需工業發展の現段階…鈴木茂三郞

帝政ロシア末期の軍部動向…煙山專太郞

財界閑談錄・早川鐵治

鈴木三重吉・小宮豐隆

渡歐通信・武者小路實篤

久原房之助・山浦貫一

氾濫國策の行衛・石濱知行

馬場增稅方針批判…阿部賢一

英伊關係の新局面…益田豐彦

貿易戰線の强化…牧野輝智

伊藤博文公と私 金子堅太郞

"白頭"禮讚에이赤誠

一般團員은定員을突破

申請期限은廿五日로變改 指定團員外는抽籤으로決定

破天荒的壯擧에 旋風的人氣

본사의 회생적 대사업으로 백두산 탐험계획이 한번 발표되자 본사 사람 현단 이외에 일반란원의참가개방은 이방면뜻잇는인사들에게 실로큰충동을 주게되어 발표즉시로 일반참가자 신청은련일봇주하야 발표후 일주일이못되는오늘에 벌서모집 정원을훨신초과함에 이르럿다 이와가튼 험로와 이와가튼원여일을 봉고하고 오백여리무인 지경에팔일간의고영이란 마마치안흔 고난을무릅쓰고도 압흘다토아 이탐험에참가하겟다는 정성은 오로지백두산 성역(聖域)가 끄으는 바람이요 백두산의 탐은자정(慈情)의 미치는바 정성일것이다 본사로서는 이와가티 예기한바에어그러짐이 업시우리가든 성원을못내 감격하고 그러리라고 미덧든 백두산 례찬의 정성이 불라고 잇슴을 볼때에 마음껏 눈물 겨웁게 늣겨슬뿐이다 그리하야 백명이 면백명 천명이면천명 지원하시는대로 모다함께 손들을마조잡고 그리운 백두산을 참근하고시픈 열의도적지안호나 여러가지사정으로 이뜻을 밧지못함은 실로유감이나 본래 예약한 칠월말일 신청기한을당겨서 오는이십오일까지로 신청기한을 정하고 이안으로신청자를 접수하야 처음발표한규정대로 일반참가단원중에도 본사에 지정참가단원을 제하고는 추첨으로 결정하게되엿다 신청자로서는 충분히 이정을량해해주어야만될것이다

한목숨건지려다 세생명함께죽어

母性愛와義俠心의繼走

生活難이나흔黃州郡下의悲劇

【兼二浦】그날그날생활에 궁주려 강가으로떠드려오는 나무가지를 건지려나갓다가 어린아들이 물에빠지자 건지려달려든 어머니마저 생명이 위급하게됨에 함께나갓든 동리부인이 두생명을구하려 뛰여들엇스나 구하지못하고 세생명이 무참히한꺼번에 죽엇참극이잇다

지난십구일 오후세시쯤에 황주군송림면오류리(黃州郡松林面五柳里)김익도(金益道)의장남 첫재(一次)(七)가 나무건지려가는 어머니를딸아 동리압으로 흐르는 대동강(大同江)에나가 강엽에서 목욕을 하다가 잘못되여 물에 빠지자 그의 어머니 윤씨(尹氏)(三)가 뛰여들어 갓스나 윤씨(尹氏)마저 생명이 위급하게 되매 함께잇든 가름동리 김룡히(金龍熙)의 안해 김씨(金氏)(三)가 참아보고잇슬수업서 모자를구하려는 의협심에 물에뛰여들어갓스나 원체물도깁고 빨온데다 약한여자의 몸임으로 뜻을일우지못하고 김씨마저물에빠저 어린생명하나와 이름다운 의든 두부인의생명이는 물에삭긴바되엿다

급보를들은 동리청년들이 시체수색에 노력중이나 이십일낫까지아모효력이업스며 이러툿한 순정의죽엄에 온동리는 우룡비치며 이일을듯는 사람으로하여금동정의눈물을 금할수업다고한다

東京商船學校練習船仁川寄港

동경상선학교(東京商船學校)련습선 대성환(大成丸)은 남양(南洋)카로라인군도로부터 돌아오던 길에 이십이일 오젼열한시경에 인천(仁川)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배는 이천오백톤의 배로서 이백십구명이 타고잇서 이십칠일까지 정박하고 이십팔일에는 다롄(大連)으로향하야가리라한다

自轉車專門賊

廿臺에五百餘圓

부내 룡산서 사법계에서는이십일밤에 청엽정(靑葉町)근방에서 방황하고잇는 젊은이한명을붓잡어다가 문초한결과 이는수원군북면(水原郡北面)태생 박영근(朴永根)(二三)으로 지난봄부터 시내 각처로 도라다니면서 식산은행(殖銀)을 필두로 강운행관공서 백화점문아페 노혀잇는자전거를 전후 스무대가량에 오백여원어치를 훔처다가 팔어먹은 사실이 드러낫는데 다론죄도 상당히 잇슬것으로 보인다한다

學父兄의寄附로 公普校施設擴充

위선六校는今秋부터着工

경성부학무과에서는 시내각보통학교의설비를 충실히하기위하야 여러가지로 계획을세우고잇스나 역시 경비를 내이기힘들어 각학교의 불충분한시설을그대로참고 잇섯는데 부득이새로시설을하지안호면 안될곳에대해서는 학교후원회측과 련락하야 학부형유지들의 긔부를 바뎌서하게되엿다 그래서 아래의여섯학교는 가을부터 강당기타의신축을 하게되엿다。

▲재동(齋洞)보통학교는 일만팔천원으로 강당을 새로짓게하엿고

▲교동(校洞)보통학교는 삼천원으로 강당을증축케되엿고

▲어의동(於義洞)보통학교에서는 강당을새로짓기로하고 오백오십원으로 긔지를새로매수햇고

▲혜화(惠化)보통학교에서는 삼천원으로 새로강당을짓게하엿고

▲매동(梅洞)보통학교에서는부유지인 뒷산삼백평을 매수하여긔지를 넓피엿고

▲덕수(德壽)보통학교에서는일천백원으로 변소를 고치고또이마삼천백원을 드려서 운동장을확장케하엿다

明治町入口交通事故

이십일일 오후다섯시경 남대문통(南大門通)이정목 명치정(明治町)입구에서 명치정(明治町)이정목팔십이번지 대경(大京)택시ㅣ운전수 윤희병(尹禧炳)(二二)이가 운전하고가든차에 본정(本町)이정목구십번지 야촌상점(野村商店)점원 김진춘(金振春)(一七)이가 다치여 이주일동안 치료를요할 상처를입고 곳욱정(旭町)뢰호병원(瀨戶病院)에입원치료중이라한다

安全地帶바든 서투른運轉手

이십일일 오젼령시반 황금정(黃金町)이정목 백사십팔번지 압안전지대에 화물자동차가 충돌되여 경전(京電)사무소의벽을부시엿다고한다 운전수는 태평(太平)한흥자동차부 최상홍(崔祥洪)(二五)으로 경제칠진백사십일호차를 운전하고 종로(鐘路)방면으로가든도중 전긔지점에서 다른택시ㅣ가마하달리는 바람에 서울오지멘안되는 최상홍은얼떨김에 사고를 내인것이라한다。

運動競技

都市對抗野球에 全京戰今夜登程

來八月一日부터 東京서열리는都市對抗野球大會에 出戰하는全京城軍은 二十二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發、廿四日午後七時四十五分東京에 到着하야 四谷區右京町松竹旅館에 投宿할豫定이라한다

女子排球戰績

全朝鮮女子排球選手權大會及京城少女排球大會는 昨廿一日午前九時부터 龍山鐵道局코ㅣ트에서擧行한바 이날의 各部戰績은다음과갓다

◇少女部第一回戰

京城女高B 2 (21 21 / 15 13) 0 龍谷

淑明女高 2 (21 18 21 / 10 21 9) 1 二高女

京城女高C 2 (21 21 / 10 19) 0 龍谷C

二高女 2 (21 21 / 16 19) 0 同德女高

◇同準決勝戰

京城女高B 2 (22 21 / 20 9) 0 淑明

二高女B 2 (21 21 / 8 2) 0 京城女高

◇同決勝戰

二高女B 2 (21 21 / 17 13) 0 京城女高B

◇女子中等部第一回戰

龍谷…(棄權)…一高女

二高女…(棄權)…同德

◇同準決勝戰

女高 2 (22 21 / 20 13) 0 龍谷

二高女 2 (21 13 21 / 15 21 16) 1 元山高女

◇同決勝戰

二高女 2 (21 21 19 / 14 16 1) 1 京城女高普

◇一般部決勝戰

[illegible] 2 (21 21 / 18 17) 0 女醫科

崇專庭球軍敗退

【光州】平壤崇實專門學校對全光州軍의 對抗庭球戰은 지난二十日午後四時부터 光州女子高普校코ㅣ트에서 開戰한바 光州軍이快勝하엿다

【光州軍】 【崇專軍】

○(鄭寅[illegible] 崔憲根) 4…3 (黃炳奎 郭聖煥)×

×(金鍾熙 金相中) 2…4 (金化德 金殷江)○

○(姜在鎬 朴奕) 4…1 (金大吉 金熙哲)×

×(村井 朴永德) 2…4 (車明善 崔在甲)○

○(金性斗 張漢基) 4…0 (朴奉守 崔應祥)×

第二라운드

○(鄭寅[illegible] 崔憲根) 4…2 (金化德 金殷江)×

○(姜在鎬 朴奕) 4…3 (申明善 崔在甲)×

今日의運動

◆野球=甲子園中等野球大會朝鮮第一次豫選第一日(中部朝鮮)京中對善隣(午後一時)京師對中央高普(同四時)京城運動場(觀覽無料)

三南應答=陜川海印寺

三南(慶尙·全羅·忠淸六道) 中部(京畿·江原兩道) 西北(平安·黃海·咸鏡五道)

석왕사(釋王寺)? 절사짜가부럿스니 좋의심은 햇지만은 우리가 듯기는 어느교외 요릿집일홈으로 기억에 남아잇거든! 음담랑떠들의 여름철 도피굴。모르하네중들자들이아니면 파ㅣ스기업는 병자들이 억신떠신모혀드니、잘못보면 결핵료양소(結核療養所)。산문을드러서자면 쉬북소리 목어(木魚)소리는 히미하게들릴뿐이요 구여니울난봉가에 장구소리만 낭자하니 종로야시싸구려판에 일전짜리 아이스·케익한개를사먹고 척서를햇지 그뜰놀볼라고 석왕사를간담? 달고도 신감로수?알아듯게쉽게말하자면 헐렵한 사이다맛갓단말。어름에 채인사이다는 장려에서도 파는감로수。혼자 뽑내일아니건든

여긔는 합천가야산(陜川伽倻山)조선제일 대찰(大刹)해인사(海印寺)。이십리 홍류동(紅流洞)은 이절경개의 푸로록크。열보(步)에 폭포、백보에 벽담(碧潭)、등라(藤蘿)욱어진속에 풍우천년창송고목은 한늘을 치찌를듯。서산대사(西山大師)는 이동구를 읊조려

花飛暮春日 莽入武陵天
何處神仙會 遠林生紫煙

이라고 탈속음한 그의눈에도 선경으로 지목하엿고

최고운(崔孤雲) 선생은 만년을 이동중에 롱산정(籠山亭)을 짓고보내며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籠山

이라고 읊조렷다。

개면원(開面源) 락화천(落花川)무릉교(武陵橋) 취적봉(吹笛峰) 비파암(琵琶岩) 음풍뢰(吟風瀨) 첩석대(疊石臺) 옥류정(玉流亭) 락화담(落花潭) 자ㅣ일홈만드러도 어떳시요。문턴이이러커든 일주문(一柱門)썩 드러서 대가람(大伽藍)의 웅자를대할때는 벌서 떠의와는 딴세계。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자랑은 멀리제처두엇스니 식견은 하지말고 용기잇거든 나와보렷다!

炎熱地獄의平壤市內

『投身·溺死·飮毒·墜落等 慘劇續出』

【平壤】양마(陽魔)의폭위는살인적열파(死人的熱波)를던지어 사람을 밋칠듯이기가 막히게하는데 혹염으로인함인지 죽엄의나라에 발거름을 옴기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생기고잇서 도처마다비극의천지이다

其一 평양부내 승오리(承玉里)리모의처 김보패(金寶佩)(二九)는 십륙일밤에다량의 양재스물을마시고 죽엇는데 복잡한원인도업지안치만사랑싸홈끄테 작난이심한것이라한다

其二 평양부내 동대원리(東大院里)엽업부 사택 향부김경삼(金敬三)(四二)은 십륙일밤 동리채탄장에서 목을매고죽엇는데원인은 염세자살이다

其三 부내서성리(西城里)양덕봉(楊德鳳)(三六)은신양리(新陽里)십오번지김병칠(金炳七)의 가옥신축공사장에서 작업중이십륙척이나되는곳에서 떠러저 즉사햇다

其四 십칠일오후두시 사십분경대동교(大同橋)서안제이 『피ㅣ어』에서 루신자살을 도모한남자를구조햇는데 생명이 위독한바 이남자는 대동군동진면간리(大同郡東津面間里)류원화(柳元化)(三五)로 병고로 자살하려는것이다

其五 평양부내 서성리(西城里)김영걸(金永杰)(二七)은 삼년전부터 사위와동거중 극도의 생활난을 비관하고 십륙일 오후 열한시 보통교(普通橋)에서 뛰여나려 자살을햇다

人道橋附近서 溺死體發見

이십일일 오후여덟시경에 시내 한강교(漢江橋)부근강물에 빠저죽은 시체하나가 떠올랏는데 부근사람들이 끄집어올려 소관룡산서에 알려와서 경관이 조사한결과 그는 시내 계동정(桂洞町)사십사번지 변동진(邊東振)의장남 의섭(義燮)(二〇)이라는청년으로 본정어느음식점배달부로 다녓는데 지난십구일집을 나가고 안돌아온것으로 수영하다빠저죽은것이듯 하다고한다

十三名全部死亡

그中八名만屍體發見

慶興阿吾地炭坑慘事의續報

【警務局着電】십구일 작업중에 단까쓰때문에 폭발되엿든 함북경흥군상하면(慶興郡上下面)에잇는 아오지(阿吾地)탄광의 참사는 당시 십륙명중삼명만은 구하고 그남어지는 항내에무치어 생사불명중이엇는데 이십일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항내에 무처든 십삼명은 모다 사망하엿는데 그중 팔명만은 시체를 반출하고 남어지는 아직 시체조차 반출치못하엿다 한다 탄광회사측 에서는 사망자들의 가족이 동요될것을 념려하야 아직 사망자의 상황을 발표치안코 잇섯든 모양으로 가족들의 동요는업는모양이다。

馬車에小兒轢傷

이십일일 오후령시오분경에 시내 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삼번지의구호 로상에서 시내신당정(新堂町)일백륙십이번지의삼서록호사는 민홍식(閔興植)(二〇)이가 몰고가든 마차에 시내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삼번지 십일호 신도성(愼道晟)의장남 석범(錫範)(四)이가 치여서 엽구리에 전치일주일간의 부상을입엇다

自轉車에負傷

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오십이번지 고학인(高學仁)의 장남 영희(英熙)(一〇)라는아이는 이십일밤여덟시사십분에 광화문통경찰관강습소아페서 그때마츰 시내계동정(桂洞町)륙십칠번지 우제탁(禹濟鐸)(三〇)이 타고가든 자전거에바치여 을볼펀둔이찌저젓다 약이주일동안 치료받을중상이다 자전거의등불이 붉엇지안해서 그와같을 가로건느려든 피해자가 잘보이지안힛기때문에 바치게되것이라한다

北朝鮮에低氣壓

南朝鮮엔颱風이猛烈

新義州方面에大雨가잇슬듯

仁川觀測所發表

【仁川支局電話】북만주방면에질벽륙십미리의 저긔압이 오늘아침부터 갑작이 나타나서 국경방면을 중심으로 평안북도일대에는 비가내리기 시작하엿슬듯하나 아직전보가업서서 (廿一日午前十時現在)마일비가 오기시작햇다면 이번에는 큰비로 될듯하고 특히 신의주방면에는 장마질 염려가잇다

그리고 류큐렬도(琉球列島)근방에는 칠백사십이미리의 태풍(颱風)이 생겨서 황해방면으로진행하는중인데 동경(東經)일백이십칠도 북위(北緯)이십사도를 중심으로 바람은 맹렬히 불고잇는데 이로말미암아 남조선일대에는 피해가 념려된다

祝 紹介版發行

江景 土曜會
江景出張所
江景 姜錫璜
江景 朴在新
江景 江景牧場
皇華釀酒場 尹甲董
豆磨面事務所
夫赤面 金顯實
江景 橋田製帽所
論山 梶原酒造場
江景 李鍾和
江景 李殷國
江景 江景普通學校
連山邑內 和信連鎖店
江景邑會議員 丁興燮
江景 全養浩
江景東拓 佐佐木幸喜
連山驛前 吳仁燮
江景 竹尾彌
江景 金道逸
江景 金信堂
江景 海東商會
江景 江景木工場
江景 天愛時計店
論山郵便所
夫赤面長 金顯實
陽村面長 金宅鉉
江景勞働組合
朝鮮曲子 論山支店
論山 尹錫熙
論山本町 朝鮮料理 西洋料理 花月
江景本町 朝鮮料理 大成舘 電話一四七番
主 黃錫鉉
藝妓 明花、白五、錦香 玉田、玉姬、香花 春紅、花仙、蓮紅 弄珠、素香、桂香

◎어떠케하면 좀더잘사나?

우리가 이세상에 생겨나서이생고해(苦海)라고 고생만하고산다 쌍가마(雙轎子)안에도 서름이잇다고。행복스러운중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불행이잇다 돈이업서 하고싶은일을못하며 돈은만어도 병이잇는지 병으로서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 만흐면서도 번거러가면서 병을알는다든지 일일히들어서 말할수업스나 제일고통스러운것은 몸에병이잇는것이다 신외무물이라 몸에 병이잇고는 영웅열사도못견대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돈이만하여도쓸대업고 지위(地位)가 놉다해도 다ㅣ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미테 비정만들어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더구나몸에무서운큰병이잇다면 당장에죽을것갓다 감기만들어 머리만좀아퍼도 견디지못한다

의학(醫學)상으로 보면 무슨병이든지 대소를물론하고 다죽는병이라한다 그런대우리는 그런줄은 모르고의학과위생(醫學과衛生)의지식이 업기때문에 항상병을알코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니우리가 좀 더 잘살고행복스러운생활을 할나면제일병에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걸녀도 그병이 점점중하야저서 죽게까지 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신효한 약을구하여서써야하겟다 그러면 어느약이제일조흔냐 삼척동자라도 다ㅣ아는 서울신성당약이 무슨병에든지 제일 조타한다 이것은 일날년 사람이면 다ㅣ말하거니와 더욱 각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잘증명한다 날마나 나다십히하는광고를 보드라도 이것이확실히증명하는것이다。호미로막을것을 둥한히하면 가래로도 못막게되니 이글을 보시면병에만은신성당약을 곳쓰시오행복과광명은 서울신성당으로부터! 신성당 칠대명약외에 무슨약이든지업는것이 업사오니 다소를물론하고 제일먼저 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턱 제일큰 휜벽돌집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십시오 진체구좌는 경성四九五〇번입니다 주문하시는대로 당일로보내드립니다

칠대명약

체증 병과 엔 겡오ㅣ — 완고용 삼원 / 중증용 이원 / 경증용 일원

림질 대하 냉병 엔 구로벨 — 완고약성용 구원 / 만성용 오원 / 급성용 삼원

매독 엔 푸로다ㅣ — 완고용 칠원 / 중증용 오원 / 경증용 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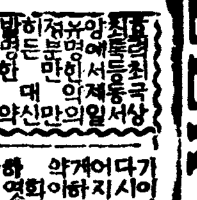
부족증 폐병 늑막 엔 나오뻬ㅣ — 초기용 오원 / 이기용 십원 / 삼기용 이십원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ㅣ — 중증용 십원 / 경증용 오원

기침 천식 해소에 에치뻬ㅣ — 완고용 삼원 / 중증용 이원 / 경증용 일원

치질약 엥구루 — 중증용 이원 / 경증용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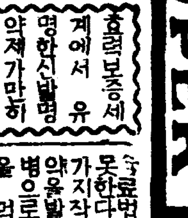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ㅣ(KAIZER)가제일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 수명이잇스나 정력이 쇠하야 [illegible] 못산다 [illegible]

가이자ㅣ는 신체의쇠약한조직을 소생시키는 보음보양성약으로 정력을씩씩하게하는 왕성명한 약이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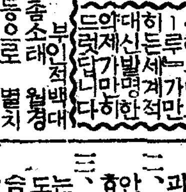
폐병 부족증 늑막염에 나오페ㅣ(NAOPER)가제일



효력보증 세계에서 유명한신발명 약제가마하 드렷습니다

폐병은 불치의난병으로 일반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대로 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얏다 입대까지는 환부의균을마족이라고드럿스나 그래서는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필요하나한편으로몸도보하고자식(滋食)하는 부분을막는법이새로발명되엿다 즉 살균、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 일시에하여야 다종래에는 [illegible] 여러가지로 애를썻다 제일약과 식과 일광욕과 산소료법 카루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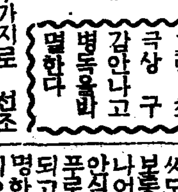
림질 대하증 냉병엔 쿠로벨(KUROBER)이제일



효력최 세계적 명약 [illegible]

림질은 [illegible]

매독엔 푸로테ㅣ(PROTER)가제일



효력최고 극상구 감안나고 병독을바 멸한다

매독은 선천후천 두가지로 [illegible]

發賣元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大開城建設爲에 七個條項을決議
同時에執行委員十二名을選定
開城府民大會에서

【開城】 거부개성과자구락부주최(開城記者俱樂部主催)인 부민대회(府民大會)는 예정과가티지난 십구일 오후여덟시 정각에 부내 고려청년회대강당(高麗靑年會大講堂)에서 개최하엿는데 정각전부터 조수가티 밀려드는 부민들은 삽시간에 입추의여지가업시 공전의 대만원을 일우엇스며 보구락부위원장 림한선(林漢璿)씨와 아홉연사들은 각각 부민발전상 긴급문제를 만장박수리에 열변을 토하엿스며 즉시로 집행위원을 선거하야 이십일로 우선 시급한 개성전긔회사책임자(開城電氣會社責任者)를 방문교섭하기로 되고 동십이시에 폐회하엿다는데 동대회석상에서 토의한사항과 연사급집행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決議事項

一、開城電氣株式會社는 會社解散에當하야 從來府民이隱忍自重한것으로써 會社의發展에寄與한 實狀에鑑하야 맛당히會社로서의 府民을爲한巨額의社會施設을하도록 要求할것

二、새로히 當府에電氣供給을業으로하는 西鮮電氣合同株式會社에 對해서는 적어도京城府內의 電氣料金과 同樣한標準까지 電氣料金을 引下하기로 要求할것

三、府當局에對해서 迅速히細民의 生活安定을期하는 社會施設을하도록 陳情할것

四、商工會議所에對해서 中小商工業者를爲하야 積極的으로活動하기를 要求할것

五、開城─新義州間鐵道敷設을早急히實現토록促進식힐것

六、開城府內 南北線道路의 市區改正을 至急着手토록 府當局에要求할것

七、開城府內專門學校設立에對하야 府當局及 京畿道當局에陳情할것

執行委員

孔鎭泰 金日永 林漢璿 張熙淳 金基元 曺秉台 盧秉駿 久保田新三郎 北野旭矢 金井米一 井本熹市 安德義雄

永登浦公普後援會

(永登浦)시내 영등포공립보통학교(永登浦公普校)후원회에서는 지난십구일 오후팔시부터 동교강당에서 후원회장 김태집(金泰集)씨사회로 총회를 개최하고 소화십일년도 결산에관한사항과 소화십일년도 예산에관한 사항을 토의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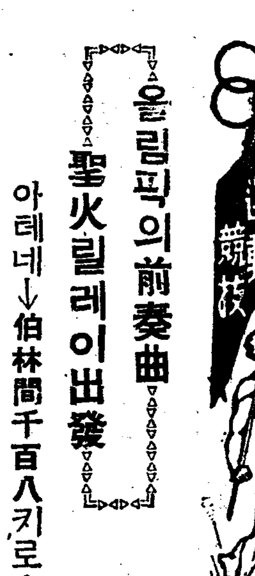
二百餘氷果商 嚴重團束方針
仁川署의夏節衛生對策

【仁川】 몰려오는 혹서와한가지 일반가정에서는 "아이스·케익"을 응용자가 격증하고잇다 이반면에 또 이로인한 전염병도적지안케 창궐하고잇다 더욱이 심한것은 적리(赤痢)병이 성행하고 잇다 이에 인천서(署)위생주임은 전염병박멸책의 하나로 부내에잇는 이백륙십호의 빙과(氷菓)상을 엄중취체하야 불량원료를사용한자에게는 엄중처벌을 하리라는데 일반가정에서도 여름을당하야 각별한 주의를하기바란다한다

永登浦第一區 町會組織

【永登浦】 영등포정제일구(永登浦町第一區)정회(町會)는 창립준비위원정인환(鄭寅煥)·최병진(崔秉鎭)·미산주개(梶山周介)등제씨의알선으로 조직준비가 되여지난십구일 오전구시부터 연예관(演藝館)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취지설명 규약제정 역원선정등 제행사를 마치고 오후일시폐회하엿는데 선정된 역원은아래와갓다고한다

▲總代 崔秉鎭 ▲副總代 遠藤勇之丞 金敏植 盧載麟 ▲相談役 梶山周介 鄭寅煥 金道元 中川以良 ▲評議員 張禮煥 愼炳龍 池鉉玉 洪淳麒 鄭文善 宋宇錫 金燦榜 許自寬 金壽命 金敏植 白文玉 黃公安 金相玉 趙善行 朴相來 輿居仙藏 金瑞允 金義政 金贊玉 元珪常 畠山基作 金興成 增田次郎 李永淳 朴一南 金鳳濟 李聖煥 崔敬錫 李大永 全贊石 朴承喆 金泰洙 孫好公 太田寬 朴完根 秋吉由衛 朱海 崔約翰



올림픽의前奏曲 聖火릴레이出發
아테네↓伯林間千百八키로!

空前의 盛況을 豫期하고 잇는 第十一回 올림픽大會는 마츰내 旬餘를 남기고 目前에 迫到하고 잇는데 마츰 今回伯林大會는 올림픽復活四十周年에 該當함으로 主催國 獨逸에서는 古代希臘의 올림픽을 記念할 여러가지 意義잇는 行事를 計畫中 그중大會十六日間의 會期동안 불비칠希臘의 올림피聖火를 大會의 發祥地인 올림피아에서 伯林까지 運搬하는 聖火「리레ー」는 懷古的意味에서 만흔興味를 끌고잇다한다

이聖火리레ー는 二十日午後 올림피아에 장치한祭壇에서 嚴肅한 奉獻式을擧行하고 그「횃불」를가지고 第一走者는 二十一日午前零時(日本時間二十一日午前八時)出發하야 途中希臘 불가리아 유ー고스라비아 洪牙利 墺太利 체코스로바키아의 六個國을通過하야 沿道各國走者의 從走로 八月一日 大會開會式當日 正午會場에 到着하야 올림픽塔上에옮기기로되엿다 이聖火리레ー의全코ー스는千八百키로 沿道各國의 走者合計千數百名에 達할모양이며 特히 伯林最終코ー스에는 千八百九十六年「아테네」에서 開催한 復活第一回올림픽大會의마라손優勝者希臘人「루이스」翁이 力走하기로되엿다한다 六十歲를넘은 老年選手의 出場이라하야 多大한 興味를끌고잇다

"米國代表軍" 船中에서飮酒、賭博

【맨핫탄號無電十八日發】 멘핫탄號로 伯林遠征의途에오른 米國올림픽代表 三百三十四名一行은 方今航海中인데 船中生活의無秩序를 暴露하야 飮酒、賭博에빠저 방울새우는者가잇서 마츰내十八日에는 同팀의 委員長부란데ー지氏가 다음과가튼 嚴令을發하엿다

今後 올림픽代表팀의 秩序를 紊亂하는者는 即時올림픽팀으로부터 除名하고 廿一日愛蘭「컵브」에다으면 上陸시켜버릴터이다

中等陸上競技 八月一日부터開幕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中等學校 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來八月一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二日間에 亘하야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往年의覇者 養正은勿論이요「마라손」의 孫基禎은 虎視眈眈 오직制覇를目標로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다

講武館冒暑練習

朝鮮講武館에서는 例年과가티柔道冒暑練習을 來廿八日밤부터開始하야 八月廿六日까지 約一個月間 同館道場에서 열터인데 一般新人生도 이번 機會에 增募할터이라고한다

甲子園中等野球 第二次豫選戰

甲子園中等野球朝鮮第二次豫選戰은來二十八日부터三十日까지의三日間 京城球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南部、湖南、中部、北部西部의豫選에서優勝한 五代表팀이出場하야 甲子園行을決하기로되엿다

女子籠球選手權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主催의 全朝鮮女子籠球選手權大會는 來三十日과 三十一日兩日間 京城에서擧行할터인데 中央에서의 出場校는 京城女高普、進明女高普 第一高女、龍谷高女等의 四校이라한다 (場所其他追後發表)

學生馬術選手來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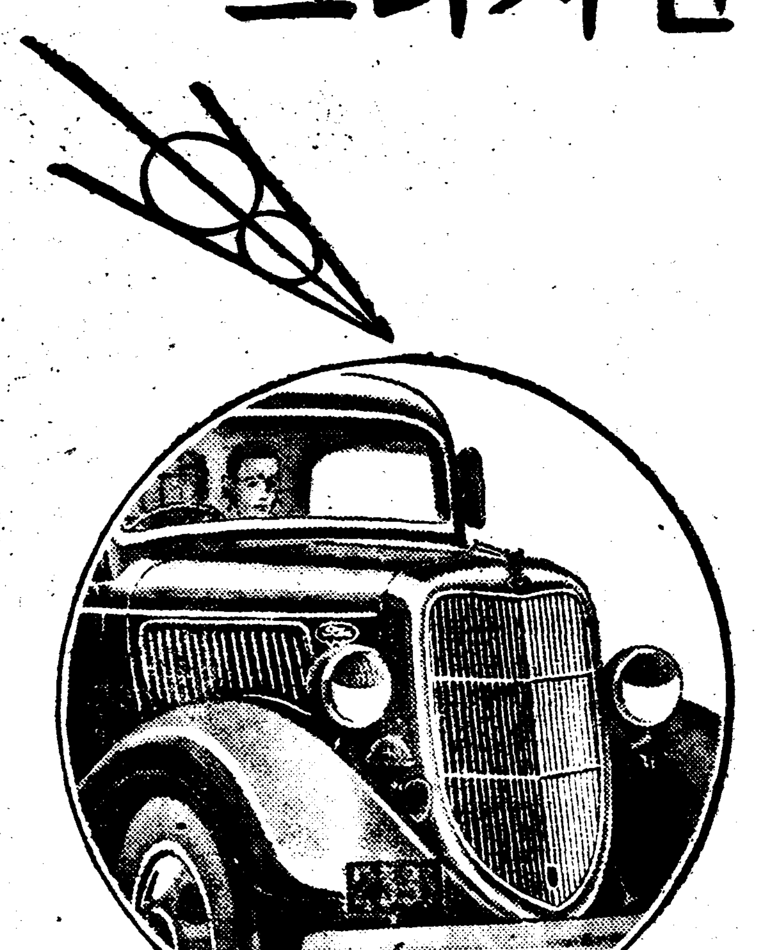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 日本學生馬術代表十名은 來八月十六日부터 十五日間豫定으로 朝鮮에 遠征하야 京城에서 朝鮮選拔軍과 對戰할터이라한다

그러치만

투럭은利益을엇기爲하야 投資物로써製作한것이다

투럭의眞價를證據삼는참다운試驗은 最大量의物貨를一定의距離와 時間內에最少限度의運賃으로運搬된다。그輸送能力을 試驗함에잇다。

또ー드가이러한要求에合致되는 最高의位를證據하는事實은。또ー드가 日本에서모든다른투럭을全部合친거보다 以上으로販賣되고잇는事實에빗처보드라도明白하다



Ford

利益を御求めになるには
是非フオードV-8トラックを御選び下さい

フオード特約販賣店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一四一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
咸鏡モーター商會 咸興府朝日町一三六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イトウ商會 淸津府彌生町六

新雜誌「月刊青年時代」創刊紀念 大宣傳을爲해

大景品付 자미난 아라내기

(課題)

		2
	5	
8		

우의六個四角이비여잇는데 그中에1 3 4 6 7 9의六字를너허서 어느로나 모로나 가로나 더하든지 十五가되게하여주시오

(答案規定)
▼答案資格 朝鮮日報讀者에限함
▼締切期日 本日부터十五日以內
▼答案은課題를切取하야 答案과同封郵送할것

各數字를記入하고郵便切手二十四錢同封送할것(切手는贈呈品各種의送料와宣傳費實費의一部에充當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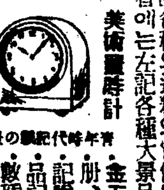
●正解者에는左記各種大景品을進呈함

·金五十錢券一枚、流行歌一冊、青年俱樂部冊一冊、映畵俳優大寫眞集一組、昭和十一年新日記贈呈券과上記高級座SP부라치나반지大景品記載新雜誌『青年俱樂部』創刊號一冊等의數種品을嚴重荷造後急送함

·不正解者에는切手를返戾하고新雜誌만送付。

答案送處 東京·麴町區九段二丁目 青年時代社

大景品 SP眞珠入부라치나반지 美術置時計



金銀 福 白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83) 〇九五九番 〇九九二番 〇二八五番 〇〇八八番
振替東京六八八番 電信略號 (トウケウイシフク)
出張所 平壤府旭町

若劇

十七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 入替無シ
▲透明光線 ユ社 ボリス・カアロフ・ベラ・ルゴシ主演
▲舞臺に立つ妻 パ社 アドルフ・マンヂユウ・エリツサ・ランデイ主演
▲エノケンの青春醉虎傳 P・C・L 榎本健一主演 丸山定夫・千葉早智子主演
大人五〇 學生三〇
P・C・L映畵と高級洋畵

㊀武田發賣品

겨드랑내와 땀防止에

外出時에、겨드랑、허리、목、이마等땀이나기쉬운곳에ダモラ를발라두면땀냄새도업고衣服도더럽히지안습니다。

ダモラ는또노린내에對하야優秀한治療劑로서一般에信賴를밧고잇습니다。

ダモラ는 安息香科植物의 有效成分을 主로한크림狀製劑인바、效果優秀、더욱 皮膚에無害한點에잇서서 年年이 需要를 늘히고 잇습니다。

【價格】小(三十錢) 大(一円三〇) ●各地藥店にあり

爽快한크림 ダモラ 다모라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36—1065 (ON:A

脚氣に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工夫中 머리가멍하며 옥신옥신하야 學習이아될때는 곳 ノーシン 노ー신 을잡수시요 머리가시원하고明快히되며 工夫가愉快하게되오 ◆어떠藥店에고잇소●

說明書進呈

三共株式會社 SANKYO 三共

當る廿二日特別公開 階上席、階下席均一 大人卅錢 學生小人廿錢 第一回午前十一時卅分 第二回午後二時〇分 夜之部午後六時五十分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超特級作 原作飯田信吉 監督押本七之輔 主題歌ポリドールレコード吹込 音響版 お七鹿子染

新興キネマ大泉撮影所特作 原作如月敏 監督青山三郎 脚色陶山密 主題歌タイヘイレコード吹込 音響版 椿は紅い 六代目 尾上菊五郎丈推薦 高野由美 新入社第一回主演 立松晃、淸水將夫、田中筆子、大友壯之介助演

RKO超特級日本版 トーマスアトキンス監督 流線型超特急 チャールズスタレット主演

永樂町 電話本局三二六番 中央館

七月廿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今週特別名畵提供週間 毎日晝夜三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鑑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廿世紀映畵社提供 유나이뗏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리차드·보레스키氏 監督 大傑作篇 싸홈하는巨象 主演 로날드·콜만氏 로레타·양氏 熱演

松竹下加茂超特作(올사운드版) 原作 靑木富夫氏 監督 二川文太郎氏 名篇 勤王飛脚 志賀靖郎氏 廣田昻氏 南光明氏 山路義人氏 河上君榮氏 嗣桜氏

매도로社作品無聲映畵 喜劇短篇 右은天國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一六六番 第一劇場

七月十五日부터晝夜 青春座公演(第二週) 愛劇家의一大福音! 朝鮮演劇史上의金字塔 崔獨鵑先生脚色

大悲劇 端宗哀史 十五幕十七場 (一夜前後篇全部上演)

사람으로써 나자 임금으로써 나자 임금이된 端宗이시외다 端宗은이世上은 갓(임금)을쓰게하시면서 十七歲의짜른生涯를눈물로마치시엇습니다 이東亞의史乘과古今의人情을通하여 의들업는悲劇의主人公端宗의生涯를눈물로엄고한숨으로도련한演劇이 그얼마나(임금)리라는것은무번말할必要도업사외다 배반하는무리의 알미운心情에주먹을떨고義로직히여生命을草芥가티버리는선비들의義로운죽엄에누가感激하는눈물을금하오릿가. 그리고또崔獨鵑先生의勇心으로된이演劇이야말로實로나量으로나朝鮮演劇史上에記錄的產物임에틀님업사외다

靑春座員總動員 登場人物百餘名 (外、喜劇一幕上演)

次週豫告、乞期待 李光洙先生原作、李雲芳脚色 再生 三幕五場

西大門町 電光3三〇番 東洋劇場

産業

朝鮮"國策豫算"
大資本誘致로資源開發中心
"生活安定"性은稀薄

今年度本府各局課에서는 明年度豫算編成에 着手하야 明年度新規事業으로國策에 置重한다고보는 諸案을提出케하고 財務局에서는 八月中에 査定을終하게 될모양인데 新事業으로 指目되는것은 京城間中央鐵道線의 新設을 비롯하며 港灣改修、緬羊、棉作의 獎勵計畫擴張、石炭液化、特殊鑛物의發見其他資源開發이 中心인 모양인데 이것은 大체 日本內地資本의 誘致에 依한 朝鮮의 · 工業化를 爲主한 非常時的 色彩를가진것으로現在傳統化하고잇는 農村의 窮乏을 救濟한다하는 生活의 安定化等한 社會的事業의 擴張되어는 程度까지 計上될것인가 하는點은 疑問視되는 터이다

旱害하 植樹形成을 本格的으로 試驗을해보앗는데 今春 管下各地의 森林保護區 또는 產業出張所等의 依囑 活着率을生育狀況을 目下試驗中인데 그試驗成績中의 報告에依하면
▲惠山鎭은 뿌리서부터 三本乃至 五本에 發芽가잇다
▲山實鎭 二本도 二十七種나자랏다
▲北靑은 八本中에 一本은枯死되엇고 그남어지는 全部發芽되엇다
以上에 나타난것이든지 生育活着이조라 林務係에서는 將來林產副業의 效果를 增養코자 目下計畫中이다

寧邊織物織造開始

寧邊販賣도 終了되고 養蠶으로

米移出減少
粟輸入增加
七月中旬米、粟輸移出入高

七月中旬中의 米穀移輸狀況을보면 米의移出은 前年同期는十三萬七千三百二十一石에 累計七百六十九萬六千三百餘石이든것이 今年은 中旬中에 移出이半減하야 七萬一千五百八石으로 되엇고累計는 七百九十六萬七千九百七十三石으로 前年보다 二十七萬一千餘石의 增加를보이고잇고 輸出을合하면 前年同期가七百八十一萬八千十八石이든것이 今年은八百萬一千七百八十六石으로되엇다 米의移出이 多少減한一面에 滿洲粟의輸入은 累增하야 中旬中에 前年同期는 三萬八千九百七十石이든것이 今年은 五萬四千百七十八石으로 되엇고累計는 昨年 九十萬三千七百八十八石이든것이 今年은 百七萬一千四百四十六石으로 約十七萬四千餘石의增加를보이고잇다 이처럼 米의移出이 減少되자 다시米價의 騰貴는 民間米價가 나리이고 粟輸入의 增은 細民層의 食糧이亦是不足을늣기고잇는것으로볼것이다

▲米穀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三九六	二、九六〇	七一、五〇八	一三七、三二一	七一、九〇四	一四〇、二八一
十一月後累計	三七、八一三	三二、四〇三	七、九六七、九七三	七、六九六、三〇五	八、〇〇一、七八六	七、七二八、〇〇八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三六○	五	一三三			
十一月後累計						

▲粟輸移入高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五四、一七八	三八、九七〇				
十一月後累計	一、〇七一、四四六	九〇三、七八八				

【備考】

	今年	前年
輸出米	一四○	一四三
移出米	[illegible]	[illegible]
移入米	[illegible]	[illegible]
輸入粟	[illegible]	[illegible]
移入粟	[illegible]	[illegible]

六月中正誤

이 不足하야 ... 二萬部에 ... 東京市赤坂區一木町西ケ原 ... 定價二圓 ... 五十錢 ... 大日本農林省 ... 定價 二圓六十錢 ... 十錢

朝鮮電球는 今後直輸出
協定交涉遂決裂

日本內地와 朝鮮電球統制는 昨春朝鮮內에 同製造業의 勃興에 脅威를 바든 日本內地側의 要請으로 對英輸出의 數量協定을行하얏는바 그際 朝鮮側은 朝鮮의 將來性에 着眼하고 數量協定을 一年限으로하고 再協定을行하기로 決定하야 今年의 更改期를 迎하고 總督府松尾屬이 朝鮮電球輸出組合幹部와 同伴渡東하야 全國對英電球輸出組合과 商工省과 折衝하고 잇든바 日本內地側은 자못 强硬한 態度를 가지어 協定은 全然 妥協의 餘地가 업는 情況이다

卽 對英電球協定은 日本의 輸出配當이 合計四千五百萬個로 此中 昨年은 朝鮮의 配當百八十萬個인데 今年은 朝鮮側에서 一千萬個를 要求한데 對하야 商工省은 僅僅四十一萬個를 容認함에 不過하는 態度이다

이 不適한 日本內地側의 態度에 朝鮮側에서는 交涉을 斷然 中止하고 歸來하야 朝鮮은 獨自의 輸出을 하기로되엇다

電球의 對英輸出의 日本內地와 朝鮮協定은 別項과 如히 日本內地側의 不適한 要求로 드듸어 決裂하얏는데 右에對하야 殖產局에서는 如左히 直輸出을 行할 意向을갓고잇다

朝鮮의 對英輸出配當은 昨年의 協定으로는 期間이 九月以降이기때문에 百八十萬個의配當을 承諾하얏스나 今年으론 朝鮮內工場의 能力도 擴大되엇슴으로 이에 伴하야 要求하얏든것이다 그런데 日本內地側에서는 全然問題가아니라는態度임으로 總督府에서는 交涉을 中止케하고 直輸出할생각인데 協定을 脫하얏다고는하나 朝鮮으로서는 統制잇는 輸出을 行할 方針이라고한다

廣州小麥共販

廣州郡農會에서는 年例에 依하야 今年에도 左記場所에서 小麥共同販賣를하는데 미리 出廻의 豫想에 依하면 四千二百四十叺을 豫想하고잇스나 그以上의 好成績을나타내리라하며 場所 日割은 아래와갓다

場所	一回日割	二回日割
京安里	七、二二	七、三一
昆池里	七、二三	八、一
分院里	七、二四	八、三
新長里	七、二六	八、五
松坡里	七、二七	八、六
板橋里	七、二九	八、八

咸南道柿栽培獎勵

端川公普校卒業生들이 심어논柿木이 벌서 꼿치고 열매가 열게되엇다 이에道佐藤技師는今年

『토마토』의 自給自足策
栽培面積大擴張

罐詰工業의 勃興은 朝鮮內토마토 栽培에拍車를 加하야 그 主產地인 慶北의 作付面積은五個年間에 當初의 十町步에서百町步로 擴張되엇스나 그年產額은 겨우 五萬繩을 算함에不過하야 아직朝鮮內의 需要六萬繩에 밋지못하야 原產地인 伊太利 또는 日本內地로부터의 輸移入이 相當히 巨額에 達함으로 將來는 朝鮮內의 自給自足은 勿論 日本內地의 需要增加를 目標로 적어도 五百町步程度까지 擴張할計畫이다 그리고 朝鮮產 토마토는 最近 特殊한 色素를 發見하고 品質이 向上되어 原產地인 伊太利品보다 나으면나앗지 못하지안어 各方面으로부터 好評을 밧고잇다 그런데 토마토 一段步當收穫은千貫乃至 千五百貫인데 一貫七錢으로치고 一段步七十圓乃至 百圓의 收入이잇슴에對하야 生產費는 自家勞力을 現金으로 換算하야도 三十五圓乃至 五十圓에 不過하야 有利한 作物이라고한다

海苔生產額激增
四百三十六萬五千圓에達하야
比前年倍增의 大豐產

今年의 海苔生產額은 四百三十六萬五千圓에達하야昭和十年의二百二十一萬圓에比較하면 實로二百十五萬圓(九割八分)의 增加인바 累年의 生產額은

昭和八年	二、二七二、七七二圓
同 九年	二、四四四、五二七
同 十年	二、二一〇、九五六
同十一年	四、三六五、三四一

인바 十年의 內譯은 改良七百二十一萬九千束 四百十五萬三千二百四十圓 在來四千三百八十五萬束 二十一萬二千圓이다

咸南畜牛狀況

지난十年度 咸南一府十六郡에서 飼育한 畜牛數는 飼育總戶數 九萬五千四百四十六戶에 對하야 飼育總數 十四萬八千百三十八頭인데 이를 一戶當으로보면 平均一頭半이라고한다 그中 第一位는 北靑郡인데 一萬七千七百二十九頭 第二位는 甲山郡 一萬五千三百五十九頭인데 前年度에 比하야 十二%의 躍進으로 畜牛咸南의 威勢를 表示하고 잇다고한다

肥料統制法
施行은十月以後
肥料審議會는 注目할만하다
尾崎技師歸任談

朝鮮重要肥料統制令의 制定은 目下審議室에서 愼重審議를 進行하고잇는바 日本內地의 同法施行은 農林商工의 兩省事務關係로 意外로 遲延될것도보아 施行令의 制定도 未定임으로 이에伴하야 朝鮮側의 制定도느저 同法의 施行은 新肥料年度부터는 十月以降으로될 豫想이라한다

農林局尾崎技師는 農林省 肥料主任會議에 列席하기爲하야 渡東中이든바 二十一日歸任하얏는데 다음과가티말한다

肥料統制法에 對하야서는 日本內地의 施行令制定이 事務關係로 意外의 遲延을 보앗스므로 日本內地와 朝鮮間의 統制上의 具體的協議도하지못하고 施行도十月以降으로될 狀況이다

肥料官會議의 主要問題는 自給肥料增產 金肥配給圓滑等으로 技術者의 意味를 感하는 點이업고 또今年度부터 各府縣에 肥料審議會를 設置하는 計劃이 잇는바 興味잇는 試驗이라고 생각한다 國營으로 三百圓程度의 小額融資를 하는것인데 民間勢力도 組織하야 適地的으로 肥料問題를 研究하는것으로 그 着眼點은 注目할만하다 肥料市價問題는 完全히 安定되어 비운動이구렵진 다는 情으로 實質狀勢를 觀望하고잇다

日用商品市況

二十一日 京城市內 海產物市況을보면 大體다음과갓다

▲고등魚 不振

고등魚는 인제부터 當節이 되엇스나 近日市內는 入荷도 相當하며 賣行도 良好한便이나 地方은降雨寡少로 農事일이 遲遲不涉하는 狀態로 例年의 今期에 比較하면 需要가 훨신 減少되고잇슴으로 亦是 地方에의 出荷가 激減되야 待雨狀態인데 今日市勢는 한손(二尾)에 對하야 十五錢 乃至十六錢가량이다

▲미역 保合

미역은 夏期에 農家에서 相當히 需要가 만흔것인데 이것도 亦是近日의 寡雨關係로 農家에서 그需要가 만흔 農事일을 旺盛하게못하는 까닭에 需要가 減少되고잇는바 이에따라 入荷나賣行이 不振狀態이며 市勢는保合으로 한손(二十葉)에 對하야 二圓七十錢乃至 二圓八十錢가량이다

▲굴비 活況

굴비는 最盛需要期에드러가 入荷賣行 共히 活況을 呈하고잇는바 今日市勢는 한두룸(二十尾)에 對하야 七十錢 乃至 八十錢 가량이다 그런데 굴비도 寡雨의 影響을바더서 例年보다 多少 需要가 減少된 傾向이나 다른 海產物에 比하야 影響을 밧는程度가적다

▲大口魚 沈滯

乾大口魚는 近日 寡雨關係로 需要가 減少된 此際에 굴비에 壓倒되야 賣行이 全然 沈滯狀態에 빠지고마럿다 今日市勢는 每斤에對하야 二十五錢 乃至二十六錢으로 前週保合이다

▲明太 不振

乾明太도 亦是 寡雨關係로賣行이 조치못하고 入荷도 減少되엇다 今日市勢는한짝(三十두름)에對하야 二十圓 乃至 二十二圓가량이다

▲메르치 低迷

메르치는 依然 良品의 入荷가업서서 市況이 그다지 보잘것이업다 今日市勢는 一貫에對하야 九十錢 乃至一圓가량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四〇	金銀鑛	江原[illegible]郡[illegible]面	七月三日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三四一	同	咸南長津郡新南面	七月三日	元山府錦石洞 代表者 安容邦 同 膠石洞 車嘉敎
一三三四二	同	平北江界郡曲河面	七月三日	江界郡江界邑 代表者 江口長三郎 楚州郡楚州面 李希丁
一三三四三	同	[illegible]	七月三日	[illegible]
一三三四四	同	[illegible]	七月四日	[illegible]
一三三四五	同	[illegible]	七月四日	[illegible]
一三三四六	同	平北[illegible]	七月四日	[illegible]
一三三四七	同	江原江陵郡[illegible]面	七月四日	[illegible]
一三三四八	同	[illegible]	七月四日	[illegible]
一三三四九	同	京畿漣川郡永北面	七月六日	[illegible]
一三三五〇	砂金	黃海遂安郡大千面	七月六日	[illegible]
一三三五一	水銀鑛	平南孟山郡[illegible]面 德川郡[illegible]面	七月六日	東京市日本橋區小舟町 小原俊二
一三三五二	金銀鉛鑛	黃海松禾郡[illegible]面	七月六日	信川郡信川面 [illegible]
一三三五三	金銀銅鐵	平南龍岡郡多美面	七月六日	[illegible]
一三三五四	金銀鑛	江原橫城郡井谷面	七月七日	橫城郡橫城面 代表者 鄭東浩 同 朴[illegible]

黃昏 (139)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뒤에오는것(三)

『복술아』

대문에 들어서며 려순이가 크게 부르자

『내 언니……어느새 오서요?』

하고 복술이가 마루로 뛰여나오다가 준식을 보고

『아 오섯서요?』

하고 까닭업시 얼골을 붉히며 웃는다。

『애、봄이 안왓던?……』

하고 려순이가 뭇자 복술은또한번 까닭모를 우슴이 압서서 발굴발굴하다가。

『아니……』

하고 려순이와 준식을 번가려본다。려순은 순간、복술의사귀는얼굴、명랑한성격을 부럽게 생각하엿다。자긔의 성격과는 회집히 달럿스나 려순은 그외성격이 맘에들엇다。자긔에게업는것을 남에게 구하는것가티 려순은 자긔성격과 달른 복술의성격을 못내 부럽게생각하는것이엇다。복술은 시기도업고 호림도업는 맑은성격을 가진여자가테다。『공장에도 이러케 산뜻한사람이 잇는가?』하고 그는 문득 생각하엿다。

『어머니……웨 그런집에 들려보시지안햇서요?』

『글세、들럿다는게 이럿구나』

하며 려순은 방으로 들어오라다가

『애 너도 들어가자』

하고、들어가지말라는듯이 그리고잇는 복술을 끄러가지고 방으로 들어왓다 뒤미처 준식이도 들어왓다。

자리에 안즌다음 려순은

『오늘 그사람을 만나봣서요』

하고 나제 P제사소 박기영이라는사람을만난 이얘기를 선참 꺼냇다。

박은 본래 려순이와 준식의 이웃동리의 농부의 아들로 려서 부내상점에 사환으로 다니다가 조고만가게를 자영하게 되고 그리다가 한때는 젊은 가라는 소꿈을 돌울만치 성공한일까지잇는 사람이다。그당시 P제사소표지소에서 그를 중간에내세워가지고 잠견(고치)을 사드리는관계로 그는 후에 사업에 실패하자 그연줄을타서 H지소에 잇다가 얼마전에 서울로 영전되어온것이엇다。

준식은 그동생과동무인관계로 그도 그를 잘알고잇섯다。그리고 P제사소고문人격으로 올라와잇다는 소식도 그공장취직을 한래서 어더들엇다。그러나 물고기가 룡이나된것처럼 배를 내밀고、알든사람 모르는체하곡하 하전한사람이 차저가면 수

『그래 뭐래요?』

준식이가 궁금한듯이 이러케 물엇다。

『맛나는봣는데 그다지 씨연한말은 안하드군요……그만한 권리는 잇는사람인가요?』

『아무렴요。회사의 큰공로잔데요……그래 아주 안되겟다구합디까?』

『아니 아직은 필요치 안타구요』

『방직회사에 근무햇단말 안햇서요?』

『웨요。햇서요。처에 경력을못 기에 대강 말하고 무슨 자리든지 조라고 햇지요……그런데 여자고보 졸업한 애기는 안햇서요』

하고 려순은 그전에 경재에게서 들은 얘기를 하엿다。그러나 경재에게서 들엇다는말을 빼기우하야 그저얼마전에 엇던 사람이 엇던공장 채용시험에응하엿다고 동경가다 왓다는말을 하고 좀 회식잇는대답을햇기때문에 그만 떠러진일이 잇다고만 말하엿다 그러나 준식은 그사람이 누구라는것을 곳알아채이고、

『네、네、알겟습니다。』

하고 이어서

『그사람이 지금 바루 우리공장에 들어와 잇습니다』

『누군데요?』

려순은 의아한생각이나서 이러케물엇다。

『김경철이라구……웨 멸말사람으로 우리곳에서 제일 먼저 대판이가 동경으로 건너간사람이 잇지안허요?』

『글세요、나도 얼마전에、일홈만은 들엇습니다만 통、기억이 업는데요』

『웨 김경재 소개로 들어왓다니까 려순씨도 아실텐데……』

『네 저도 애기는 들엇서요。그러나 아직 만나보지는 업서요』

『웨 만나면 혹시 보든얼골일는지도 모르지요』

『씩 조흔 사람이에요』

『글세 그럴라드군요』

그러하야 애기는 한참동안 아주 외제로 흘어가버렷다。

世界無比의極廉價大雜誌 ! 내것을貴한줄알라 !

朝鮮雜誌王

朝光 八月号
廿四日發賣

海洋特輯 — 鷺山의 東洋海島說話、車靑吾의 李舜臣海戰秘話、李孝石、姜鷺鄕、蔡萬植、張德祚、張文卿、張檔陽、毛允淑諸氏의港口의追憶等興味%

時事論文 — 徐椿、咸尙勳、韓晳容、金鋼溶、李元坤、張元俊、韓昇寅諸氏의 政治經濟에關한 가장權威잇는諸論文堂堂數百頁

學窓時代 追憶 — 異域에서보낸 學窓時代의 追憶으로 韓昇寅、安浩相、李軒求、金煥泰、金珖燮、朴英熙等諸氏의興味잇는글이滿載

家庭과衛生 — 閔惠植氏의 여름 朝鮮料理製法、李永哲氏의 童心硏究、李榮俊博士의 癩病에對한論文 朴太陽氏의 肺病에關한 論文等實益百%

極彩色表紙·華麗한畵報·四百頁內容

定價三十錢 (郵稅本社負擔) 京城太平通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보라!이驚天動地할內容을

『朝光』八月號 (第二卷·第八號)

目次

卷頭言 「그리비아」는表象이다。生物의그림자여!新文明스피ー드의힘가라 고갓시다스피ー드의 곳에서오신분
□表紙·바다……安夕影
海鮮情緖……그때그港口의追憶
C港의一節……李孝石
유ー카의悲歌……姜鷺鄕
出帆前夜……蔡萬植
燈台守의處女……張德祚
釜山港의印象……張文卿
어린時節의仁川港口……張檔陽
元山港의쓸기던約束……毛允淑
東洋의海島說話……鷺友山房主
□水陸二千五百里漂流記(甑帆篇)……李克魯
□李忠武公三大海戰記……車相瓚
□神秘의國安南의風俗……李鍾根
心卽惑草;黃파宮……金石松
特別經濟論文
自由主義經濟의衰頹……徐椿
列國軍縮下의日本貿易……韓晳容
國共同販賣와自由市場問題……張元俊
商業經營의本質……韓昇寅
學窓時代의追憶
에나大學時節의假裝舞踏會……安浩相
白痴舍와白鬼祭……金珖燮
세스방찻는苦生사리……朴英熙
쎌러바訪遊의머슴사리……韓昇寅
孤獨한피에로의獨白……李軒求
京都의三年……金煥泰
特別時事論文
回亞剌比亞民族鬪爭……咸尙勳
□시리아獨立承認과그歷史的意義……金鋼溶
□中央亞細亞의軍事對立과其政治的意義……李元坤
海外消息
蘇聯指導者가랑하는伊婦人
蘇聯墮胎禁止法一般에게附議
大西洋橫斷飛行競爭
朝鮮羊毛의生產額
[illegible]에서比入拒絶
飛行病院
巴里에서마라리아菌滅殺
巴里反나치스新聞主買收
婦人帽子에도愛國主義型
興論해가는아메리카인되안
大食英雄
音樂과演劇
現代佛蘭西音樂……金管
素人劇의實際와그의指導……金二三
衛生과家庭
□病患者의硏究……李榮俊
□婦人病과그療法……朴太陽
□童心硏究……李永哲
□夏節의朝鮮料理……閔惠植
世界名畵의마라손後想記……周王山
내가잇지못하는그山·그江
鷄龍山……李軒求
金剛山과大同江……李石薰
楊子江과金剛山……李明善
金剛山……高義東
咸興嶺……徐元出
總統府의萬物……孫晉泰
白頭山……金尙鎔
大同江과帝釋山……金基錫
錦江과富士山……李軒求
海蘭江과江陵江……姜在鎬
沐浴江과白華山……李一
妙香山과香山川……安在鴻
리인江과일포스山……李克魯
洛東江과俗離山……宋錫夏
石橋……方鍾鉉
金剛山과漢拏山……李德鳳
楊子江과金剛山……安浩相
大同江과金剛山……金福鎭
□메ー터制實施와勞働爭議……安龍奉
□悲戀의城生의手記……崔玉姬
어비러티라偶草八種……卞自昊
隨想 一年넘어기르든花草……金永義
老人亭……李東成
酒幕……裵裵生
文藝雜感二三……李寬永
民俗과野談
□鬼神도[illegible]……申鼎言
□朝鮮姓氏로된名字(徐賀吳卜姓)……壽春山人
消息……漫畵李大砲……崔永秀
마실·프ー리키ー를마함……咸大勳
創作小說特輯
中篇小說 川邊風景……朴泰遠
短篇小說 薔薇……安懷南
短篇小說 金……金東里
中篇小說 저무는故鄕……姜鷺鄕
長篇小說 絶情海峽……咸大勳
探偵小說 明岬有美……李軒求
戲曲 輔 妹……柳致眞